“화합·소통으로 교구 발전 이끌겠다”

태고종 전북교구 종무원장
연수 스님 취임법회 봉행
전북교구 새로운 도약 다짐
전임 진성 스님에게 공로패

조동제 전북지사장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사진 오른쪽)이 1월 15일 신임 전북종무원장 연수 스님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태고종 전북교구 제20대 종무원장에 연수 스님 취임했다. 연수 스님은 취임 일성으로 화합과 소통을 통한 교구 발전을 제시했다.

태고종 전북교구는 1월 15일 전주 파티원 코넬홀에서 ‘제19·20대 종무원장 이·취임식’을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 동방불교대학장 법담 스님, 중앙종회의장 법륜 스님, 호법원장 구산 스님 등 종단 주요 스님들과 김관영 전북도지사, 우범기 전주시장 등 3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임기 동안 전북교구를 안정적으로 이끌어 온 제19대 종무원장 진성 스님은 이임사를 통해 그간의 소회를 밝혔다. 진성 스님은 “그동안 전북교구의 발전을 위해 한마음으로 정진해 주신 모든 스님과 불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비록 소임은 내려놓지만 앞으로도 교구와 종단이 더욱 번창할 수 있도록 뒤에서 묵묵히 응원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제20대 종무원장으로 취임한 연수 스님은 취임사를 통해 교구 운영에 대한 포부와 비전을 제시했다. 연수 스님은 “중책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지만, 부처님의 자비 정신과 가르침을 등불 삼아 교구 발전에 매진하겠다”며 “특히 사부대중의 화합과 원활한 소통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전북교구가 지역 사회에서 신뢰받는 화합의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연수 스님은 이어 “종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화합과 신뢰를 바탕으로 교구를 운영하며 사회와 함께하는 불교의 흐름을 교구의 현실에 맞게 이어 가겠다” 며 “포교와 행정이 조화를 이루고 전통과 현대가 함께 숨 쉬는 전북교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수 스님은 진성 스님에게 공로패를 전달하며 그간의 노고에 깊은 사의를 표했다. 이어 영산작법보존회장 영산 스님도 진성 스님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며, 교구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진성 스님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이임하는 진성 스님에게 종도들의 마음이 담긴 선물을 전달했으며, 전북종무원을 이끌게 될 연수 스님에게 임명장과 선물을 함께 전달했다.

상진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신임 전북종무원장 연수 스님은 높은 수행력을 가졌다. 스님을 중심으로 화합하고 소통해 종단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전 원로의장 도광 스님은 법어를 통해 “서로 존재를 인정하고 서로 다름을 이해해 화합하는 교구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울산불교종단聯 “울산불교 세계화 원년” 선언

1월 12일, 해남사 보광당서 신년인사회

3대 신년 중점과제 발표 ‘눈길’
수행 · 사찰음식 등 확산 추진


울산불교종단연합회는 1월 12일 신년인사회를 열고 올해 중점 사업을 발표했다.

울산 불교계가 신년인사회를 열고 ‘울산불교 세계화 원년’을 선언했다.

울산불교종단연합회(회장 혜원 스님)는 1월 12일 울산 해남사 보광당에서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울산불교종단연합회장 혜원 스님과 정토사 덕진 스님, 정관암 대활 스님, 삼광사 지광 스님, 백양사 지선 스님, 문수사 문성 스님, 태화선원 명본 스님, 석남사 천조 스님, 한마음선원 울산지원장 혜안 스님 등 지역 스님들과 윤건우 울산불교신도회장, 이진용 울산불교BBS 사장, 국회의원과 기관장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참석했다.

혜원 스님은 신년사를 통해 “올해를 울산 불교문화가 세계로 나아가는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태화강에 밝혀질 지혜와 희망, 기쁨의 연등이 사회의 어두운 곳을 밝히고 모든 생명이 평화롭고 자비로운 한 해가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울산불교는 협동과 상생의 정신으로 성장해 왔다”며 “벽돌 한 장을 쌓는 마음으로 서로 힘을 모아 울산과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여하자”고 강조했다.

스님은 올 한해 울산 불교계가 추진할 3대 중점 과제로 △태화강을 중심으로 연등과 경관조명을 확대해 세계적인 불교문화 공간 조성 △태화강 국제 사찰음식 문화제 개최를 통한 사찰음식의 세계화 △국제 명상대회 개최를 통한 마음 치유와 수행문화 확산을 제시했다.

혜원 스님은 “태화강을 낮에는 정원, 밤에는 치유와 사유의 빛이 흐르는 공간으로 만들어 울산을 국제적인 불교문화 도시로 발전시키겠다”며 “시민과 더욱 가까이 호흡하는 불교가 되겠다”고 말했다.

윤건우 울산불교신도회장은 봉행사에서 “지난 한 해 동안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서로 위로하고 나누며 성장해 왔고, 그 신심과 헌신이 우리 공동체의 가장 큰 자산”이라며 “부처님의 자비와 실천을 본받아 지역사회 속에서 부처님의 향기를 전하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울산국제전통음식페스티벌과 태화강 국제명상전진대회 등 올해 주요 사업 계획이 발표됐다. 또 울산불교가 문화·명상·환경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불교문화 콘텐츠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이 공유됐다.

모범불자 시상식도 열려 정심행 불자가 조계종 총무원장 표창을, 금강행 불자가 울산불교방송 사장 표창을 받는 등 모두 5명이 표창을 받았다.

울산지역 사찰림 보호와 상생 발전을 위해 조계종 울산사암연합회와 울산그린트러스트의 업무협약도 체결됐다. 이번 협약은 불교의 생명 존중 사상을 바탕으로 기후 변화 대응과 환경 보전에 불교계가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의미 있는 행보로 평가된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총화종 신년하례…‘총화인권상’ 제정

1월 9일 총본산 실상사서
“자비 화합의 초심 새기자”



대한불교총화종(종정·총무원장 혜각 스님)은 1월 9일 총본산인 영동 실상사 대적광전에서 병오년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종정 혜각 스님은 신년 인사말에서 “일심이 나지 않으면 만법이 허물이 없고, 허물이 없으면 법도 없으며, 나지 않으면 마음도 없다”며 “올 한 해 초심으로 돌아가 부처님의 법연을 열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자”고 말했다.

종회의장 법만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새해 종단 운영이 종헌과 종법에 기반해 안정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종도 간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종단의 위상과 역할을 함께 세워가자”고 밝혔다.

이날 종단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문화원장 성혜 스님(경북교구 무량사 주지), 조직부장 지명 스님(부산교구 태광정사 주지), 명혜 스님(경남교구 혜원암 주지), 선효 스님(제주교구 흥국사 주지)과 회원 사찰 추천으로 선정된 모범 불자로 원주 무량사 반야원 불자, 진시화 불자에게 감사패가 수여됐다.

법회 후 대적광전에서는 부산 태광정사(주지 지명 스님) 소속 포교사 김치열(66) 불자의 출가를 위한 1인 삭발식이 봉행됐다. 김치열 불자는 법명 ‘원견’을 받고 태광정사에서 3개월간 행자 교육에 임하게 된다.

한편, 총화종은 올해 ‘총화인권상’을 제정하고 매년 영동지역에서 인권 보호와 사회적 약자 지원에 기여한 인물을 선정해 수상할 예정이다. 제1회 총화인권상 시상식은 창종기념일에 맞춰 오는 4월 열린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창원 불교 “초심으로 화합·자비 실천”

창원불교聯 등 신년하례회
법안 스님 “지역 공동체 구현”



창원특례시불교연합회(회장 법안 스님)와 창원특례시불교총연합신도회(회장 이상연)는 1월 14일 창원컨벤션센터 1층에서 창원불교 신년하례회를 개최했다.〈사진〉

행사에는 창원불교연합회장 법안 스님(창원 성주사 주지)과 상임고문 정인사 원행 스님, 불곡사 도홍 스님 등 지역 스님들과 박완수 경남도지사, 이상연 창원불교총연합신도회장, 조보현 수석부회장을 비롯한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법안 스님은 신년사에서 “지난 시간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본분을 지켜온 스님들과 불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연합회가 흔들림 없이 이어질 수 있었던 힘은 중심을 지키며 서로를 보듬어 온 데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새해에는 초심으로 돌아가 참된 자신을 돌아보고 수행과 정진을 멈추지 않으며,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로 나아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상연 회장은 “지난 한 해 봉축 행사와 불교 문화·나눔 활동이 시민들의 호응 속에 원만히 이루어져 불교의 위상을 높였다”고 평가하고 “새해에도 신도회가 중심이 돼 불교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원행 스님은 축사를 통해 “불교연합회와 신도회가 힘을 모아 시민들에게 희망과 따뜻한 위로를 전하는 중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수행과 자비, 화합의 가치를 다시 새기고 창원불교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다짐으로 신년회를 회향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성주사, 지역불교 이끌 중·고학생회 창립

1월 11일 창립법회…장학 지원, 신행 조직으로 결실



창원 성주사(주지 법안 스님)는 1월 11일 설법전에서 중·고등 불교학생회를 창립하고 청소년 포교의 첫 발을 내디뎠다.〈사진〉

중·고등불교학생회 창립은 성주사가 수년간 이어온 장학불사가 신행 공동체로 확장된 결실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성주사는 2020년부터 부처님오신날과 동지 무렵 지역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꾸준히 지원해 왔다. 지금까지 장학 혜택을 받은 학생은 200여 명으로, 장학금은 1억 원에 이른다. 이러한 인연이 학생회 창립으로 이어지며 본격적인 청소년 신행 조직이 출범하게 됐다.

법안 스님은 법문에서 “청소년 시기는 인생의 가치관과 방향이 형성되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 자신 있고 당당한 불자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학생회 활동을 통해 친구들과 가르침을 나누고 실천하며 서로를 존중하는 공동체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축하했다.

성주사 중·고등학생 불교학생회는 매월 정기법회와 템플스테이 체험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백양사, 서옹 대종사 22주기 추모다례재

1월 8일 대웅전 · 조사전서



조계종 제18교구본사 백양사(주지 무공 스님)는 1월 8일 대웅전과 조사전에서 ‘서옹당 상순 대종사 제22주기 추모다례재’를 열고 서옹 스님의 수행 정신을 되새겼다.〈사진〉

원로의원 성오 스님은 추모사를 통해 “일본 유학 시절 발표한 논문 등 학문적 성과가 널리 공유돼 후학들의 공부 자료로 남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주지 무공 스님은 인사말에서 “백양사 사부대중은 참사람을 강조하신 서옹 큰스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정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추모다례재에 동참한 대중은 조사전으로 자리를 옮겨 다례를 봉행하며 스님의 덕화를 기렸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용흥사, ‘미르닐 겨울 명상캠프’ 개최

1월 10~11일, 30명 참여



담양 용흥사(주지 덕유 스님)는 1월 10일부터 11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제3회 용흥사 미르닐 청소년 겨울 명상캠프’를 개최했다.〈사진〉

이번 캠프에는 덕유 스님을 비롯해 총무 덕진 스님, 템플스테이 지도법사 하담 스님, 정광고 교법사 진현 스님, 형진 스님, 능견 스님과 자원봉사 교사, 불교종립 정광고 학생 30명이 동참했다.

주지 덕유 스님은 인사말에서 “1박 2일의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이 여러분의 미래를 스스로 만들어가는 힘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망경산사, ‘청년 힐링 템플스테이’ 성료

광명 거주 청년 등 초청



영월 망경산사(주지 하원 스님)는 지난해 12월 13일부터 14일까지 1박 2일간 경기 광명시 거주 청년 및 취업준비생들을 초청해 진행한 ‘청년 힐링 템플스테이’를 성황리에 회향했다.〈사진〉

망경산사가 주최한 이번 프로그램은 광명시 청년센터 ‘청년동’과 예비사회적기업 ‘㈜위드라잇’과의 긴밀한 협업으로 이뤄졌다. 참가자들은 망경산사의 수려한 자연 속에서 주지 하원 스님과의 차담을 나누며 마음속 번뇌를 내려놓았다. 하원 스님은 “이번에 맺은 소중한 인연이 청년들의 삶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길 발원한다”고 격려했다.

이동격 강원지사장

정법사, 영축불교대학·대학원 졸업식

1월 10일 만불보전서



창원 정법사(주지 광우 스님)가 1월 10일 만불보전에서 영축불교대학 졸업식과 대학원 수료식을 개최했다.〈사진〉 이날 전공 27기 주·야간 졸업생 45명, 교양 28기 주·야간 수료생 50명, 대학원 과정 수료생 123명 등 218명이 학업을 마쳤다.

광우 스님은 치사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부처님 법을 전하는 주역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교양 28기 주·야간반이 비로선원 불사 동참금 100만 원을 보시해 의미를 더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